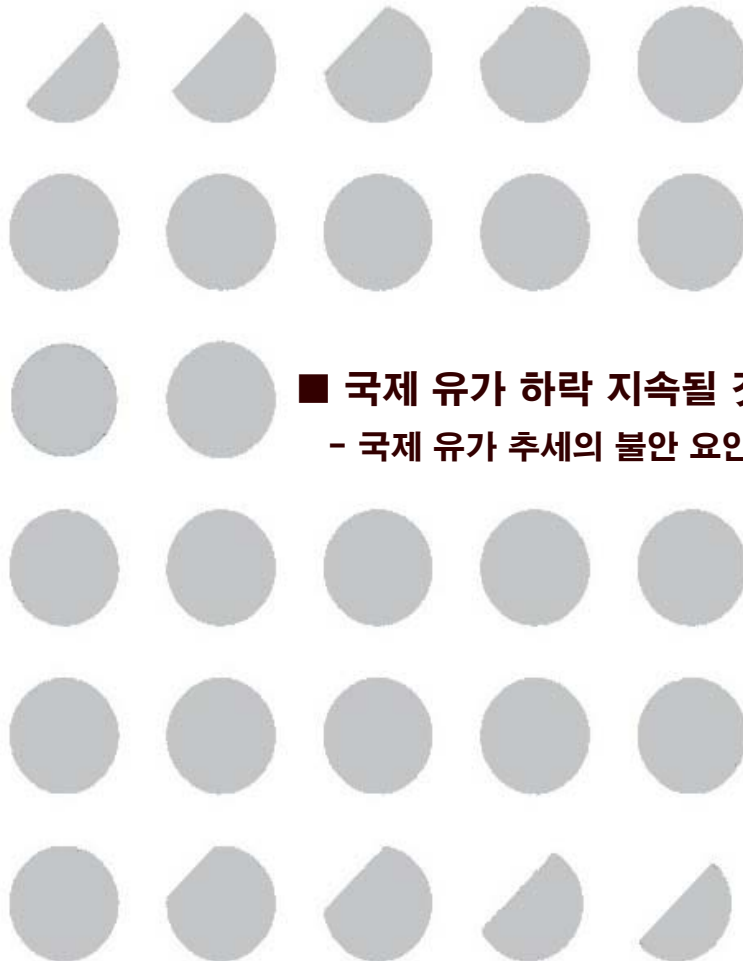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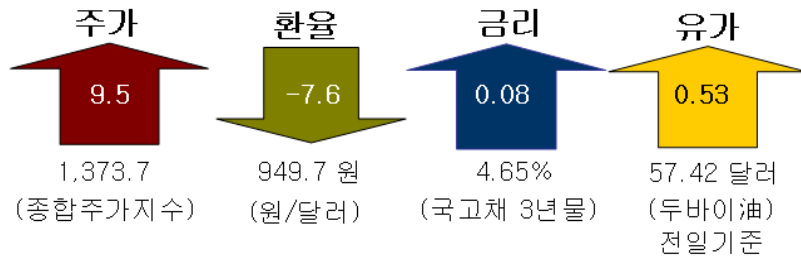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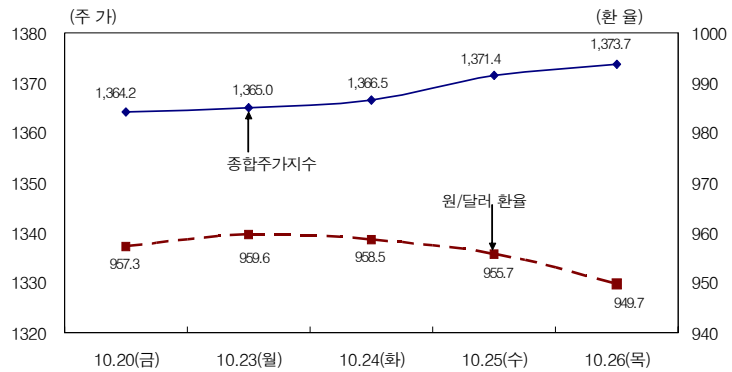


■ 국제 유가 하락 지속될 것인가?

-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0~10.26)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국제 유가 하락 지속될 것인가?
 -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들 1
- 주간 경제 동향 13
 - 실물 부문 : 3/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6%로 하락 13
 - 금융 부문 :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 하락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제 유가 하락 지속할 것인가?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들

국제유가는 2006년 8월 8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 당 72.16달러(두바이 유 기준)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유지하여 10월 25일 현재 배럴 당 56.24달러로 최고가 대비 22%나 낮아졌다.

최근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제원유 수급의 안정을 들 수 있다. 우선 9월에 들어 미국의 드라이빙시즌(휴가철)이 끝나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내전과 송유관 교체작업으로 발생하였던 생산 차질이 해소되고 허리케인의 피해도 없어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되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과 이란 핵문제의 협상 가능성으로 국제정세가 안정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유가급등을 초래한 투기자금도 수급요인과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개선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서 급속하게 이탈하여 채권 등 국제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제원유 수요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물론 2007년 선진국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들의 석유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BRICs 등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고성장을 기록하여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석유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국제 원유 공급여건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우선 OPEC는 유가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OPEC는 국제유가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감산을 실행하여 급속한 가격하락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과거 통상 500만 배럴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100만 배럴로 감소하여 크게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요 급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여력이 부족하여 유가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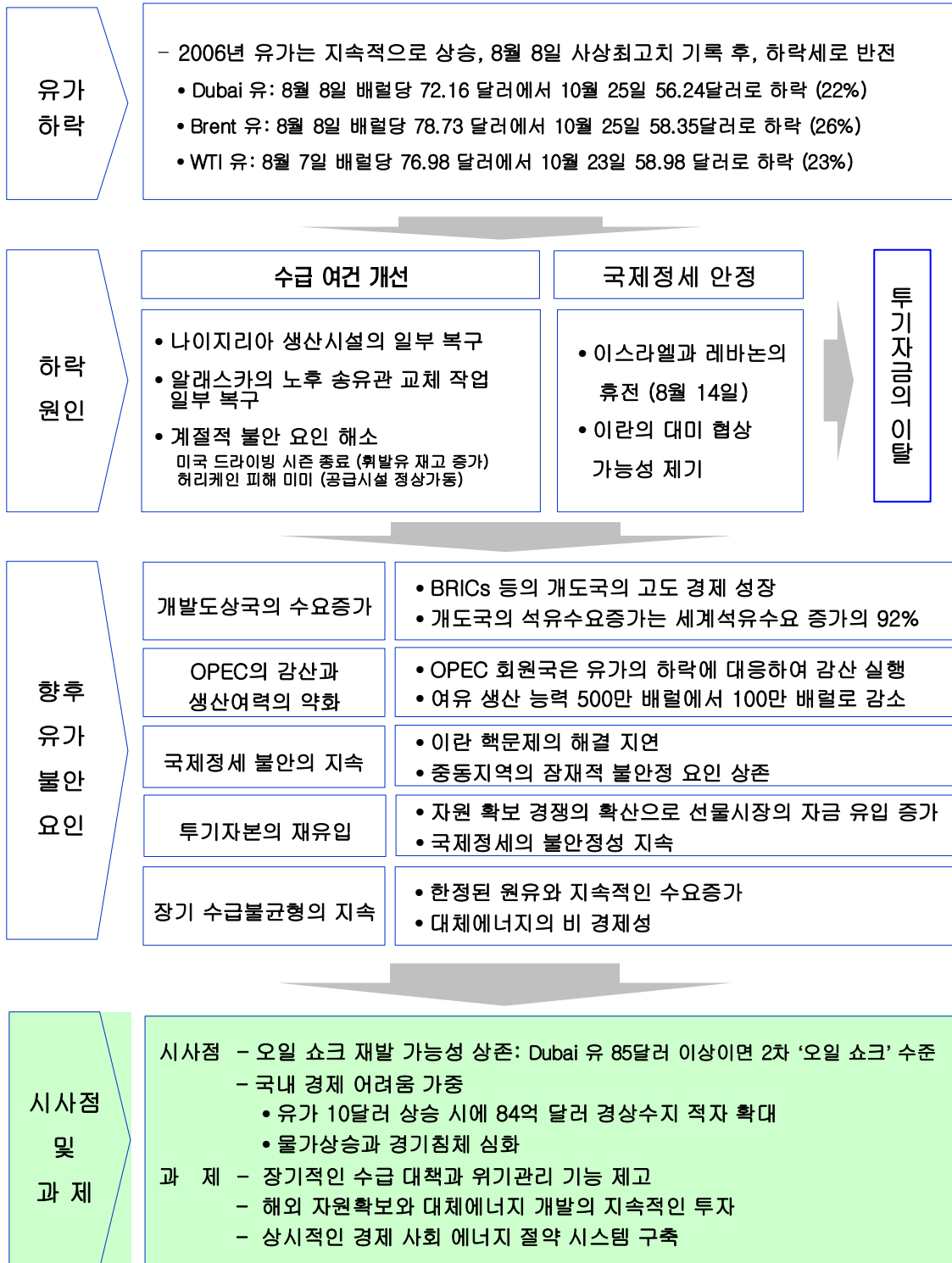
국제유가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불안정한 상태여서 석유자원의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우선 이란, 이라크 등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사태도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란은 세계석유의 4.7%를 생산하는 거대 산유국으로서, 이란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에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투기자본의 향방도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과 7월, 이란 핵문제와 중동정세의 불안정으로 투기자본이 급속히 유입되었고, 8월말 국제정세의 안정에 따라 투기자본이 이탈하였다. 그러나 향후 원유시장으로 투기자본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확보전쟁의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 등으로 유가의 상승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원유자원의 60%가 고갈되면 수요증가를 충족시키는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매장량을 6천억 배럴에서 1조 2천억 배럴이라고 추정할 때 앞으로 7년에서 15년 후에는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원천적 수급 불안 요인은 중장기적인 유가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의 불안요인을 볼 때, 2007년 중에 유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과 물가를 감안한 실질유가 기준으로 볼 때 현 국제 유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Dubai 유가가 85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과거 2차 '석유위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2007년에 국제유가 마저 상승하면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석유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국제유가가 10달러 상승에 약 84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물가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급격한 유가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세우고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해 헛지 기능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자원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쉘에너지 상품개발 등 경제사회 측면에서 상시적인 에너지 절약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제 유가 하락 지속할 것인가? -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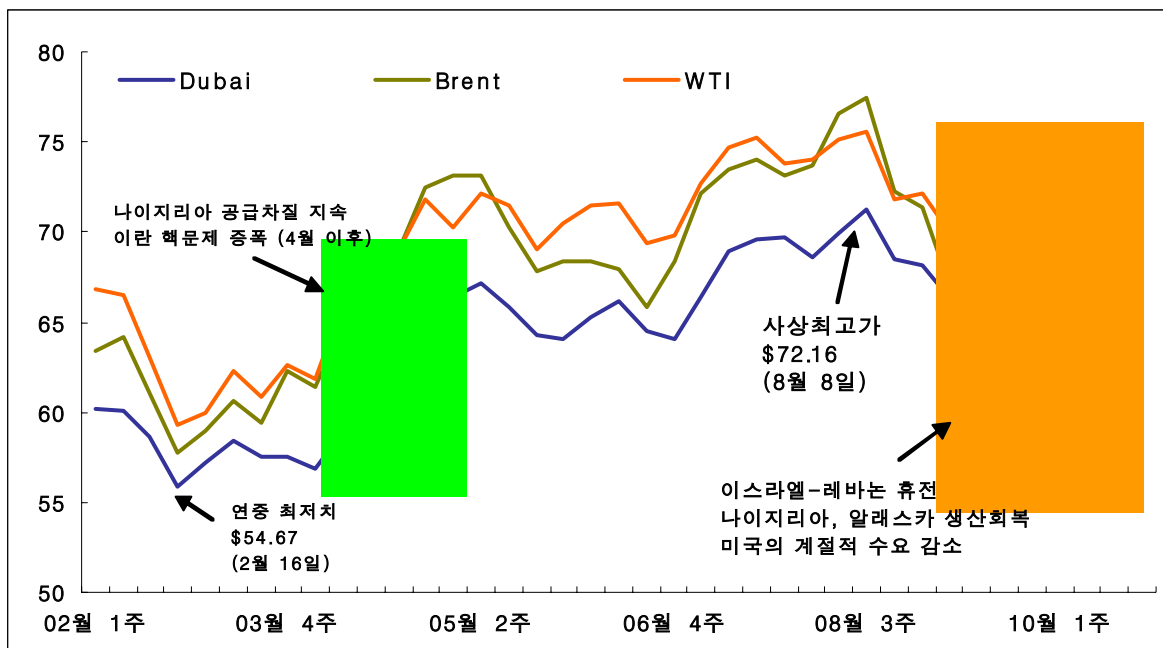
□ 국제 유가 하락 지속할 것인가? -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들

1. 국제유가 하락세로 반전

○ (국제유가 하락세) 2006년 들어 국제유가는 수차례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여 8월 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9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어 10월 25일 현재 두바이 유 기준 56.24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Dubai:** 8월 8일 배럴당 사상 최고치인 72.16 달러에서 10월 25일 현재 22%(15.92 달러)하락하여 56.24달러를 기록함
- **Brent:** 8월 8일 유가는 배럴당 78.73 달러에서 10월 25일 현재 58.35달러까지 26% (20.38달러)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냄
- **WTI:** 8월 7일 76.98달러를 기록하던 유가는 10월 25일 현재 58.98달러로 23%(18달러) 하락함

< 국제 유가 동향 >



2. 유가 하락의 원인

- 8월 중순이후 국제 유가는 공급 차질의 부분적 해소, 계절적 수급 불안 요인 해소, 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투기자금 이탈 등의 요인으로 하락함
- (단기 수급 차질 해소) 나이지리아에서의 테러와 알래스카의 생산시설 노후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사태가 개선됨에 의해 공급 능력이 회복
 -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 반군 테러로 7월말 83만 배럴/1일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생산 시설의 복구로 인한 생산 재개와 심해유전의 생산 개시로 생산 차질 규모가 30-40만 배럴/1일로 축소됨
 - 알래스카: 알래스카 유전 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Co.)사의 노후 송유관 교체 작업 진행으로 일부 생산이 재개되었을 뿐 아니라 10월 말에는 생산이 완전 회복될 전망이다
- (미국의 계절적 수급 불안 요인 해소) 예년의 경우 8월 말 허리케인으로 인한 남부지역 정유시설 피해가 올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드라이빙 시즌(휴가철) 종료로 전체적인 석유 수요가 감소
 - 허리케인 피해 소멸: 연례적인 대형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석유 생산시설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10월 초 현재까지 그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특히 8월 30일 석유 정유시설 밀집지역인 멕시코만을 통과할 것으로 우려되었던 Ernesto가 멕시코만을 비껴감으로 인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음
 - 미국 휘발유 수요 감소: 9월초¹⁾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되면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휘발유 재고가 증가함

< 미국 석유 재고 현황 >

(단위: 배럴)

구 분	원 유	중간유분 ²⁾	휘발유
2006년 4월	346,692	114,530	202,708
2006년 5월	345,500	118,892	209,277
2006년 6월	341,301	127,323	213,077
2006년 7월	333,723	132,558	210,868
2006년 8월	332,840	136,845	206,162
2006년 9월	324,767	151,288	213,899

자료: 한국석유공사.

1) 통상 미국의 경우, 드라이빙 시즌은 9월 4일 노동절(Labor Day)을 기점으로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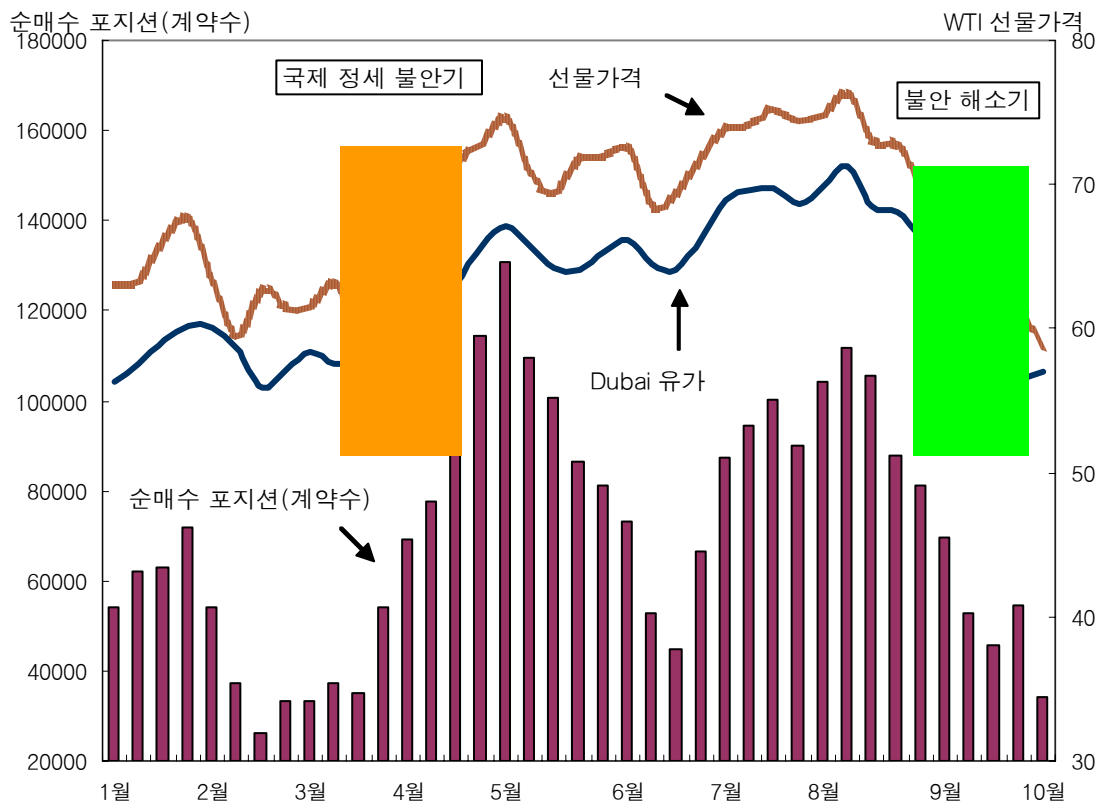
2) 원유를 정제시켜 제품화하면 경질(輕質)유분은 휘발유 및 나프타로, 중질(重質)유분은 B중유 및 C중유가 된다. 그래서 양자의 중간에 있는 유분으로부터는 등유, 제트연료, 경유, A중유가 생산 되므로 이러한 유종을 중간유분(Middle Distillate)이라 함.

- (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 2006년 1월 시작된 이란 핵문제로 이란과 미국, EU 등이 심각한 대립을 보였으나, 최근 이러한 긴장 구도가 완화됨
 - 국제 원유시장 위기 증폭: 지난 2006년 3월 이후 서방세계의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조치에 대한 이란의 석유수출 중단 및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등으로 국제 원유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됨
 - 세계 석유생산의 4.7%인 390만 배럴/1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이란이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석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세계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국제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음
 - 긴장 구도 완화: 이란은 UN이 제재를 철회할 경우 2개월간 핵개발 중단과 석유를 무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는 등 협상 가능성을 제시, 미국 및 EU와의 긴장 구도가 완화되고 있음
-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지난 8월 양국간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는 듯 했으나, 휴전 협정 체결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음
 -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납치된 병사의 석방과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7월 13일 레바논을 공격하여 중동지역 전체의 위기감을 증폭시킴
 -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UN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에 동의, 8월 14일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완화됨
- (국제투기자금 이탈) 2006년 상반기 이란 핵문제, 중동 정세 불안, 나이지리아와 알래스카 등 원유 산지의 생산 차질은 국제투기자금³⁾의 유입을 가속화시켰으나, 8월 중순 이후 이들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국제투기자금의 급속한 이탈현상이 발생함
 - 국제투기자금의 급속한 이탈: 2006년 4월 이란 핵문제와 7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의 발생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던 투기자금이 이란 사태의 긴장완화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으로 이탈하였음

3) 현물시장에 유입되는 투기자금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에서 발표된 비상업용 순매수(도)로 투기자금의 규모를 추정 함.

- 4~5월 국제 투기자금은 이란의 핵 개발 성공, 석유무기화와 무력 충돌 가능성 소식과 긴장감 완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7~8월의 투기자금은 나이지리아의 공급 차질과 이스라엘 레바논의 충돌로 유입이 급증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과 나이지리아의 부분적인 생산 재개 이후 8월 3주부터 9월 3주까지 투기 자금은 매주 6~24% 지속적으로 감소함
- **유가 동반 등락:**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의 국제유가는 Dubai유 기준으로 3월 4주 배럴당 56.86달러에서 5월 1주에는 67.12달러로 상승하였고, 6월 4주 배럴당 66.35달러에서 8월 2주 71.26달러로 상승하였다가 국제 정세 불안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하락세로 반전됨

< 뉴욕 선물시장(NYMEX)의 투기자금⁴⁾과 유가 동향 >



자료: 한국 석유공사
순매수의 1계약은 1000배럴.

4)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발표 자료에서 비상업용 선물거래를 투기자금 규모로 파악하고 있음.

3. 향후 국제 유가의 재상승 가능성

- (향후 국제유가 전망) 향후 국제유가는 장기 수급불균형 지속, 중국 등 개발도상국 수요 증가, OPEC 감산, 국제 정치 불안정 요인 상존 등으로 재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장기 수급불균형 지속) 향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에 반해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장기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장기 수급불균형: 현재 세계 석유 매장량은 매년 1.6%씩 감소하는데 반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원유는 계속 고갈되고 있어 장기적인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⁵⁾
 - OPEC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은 1.53%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구상에 현존하는 원유매장량이 6천억 배럴일 가능성은 95%, 1조 2천억 배럴일 가능성은 50%
 - 원유자원의 60%가 고갈될 시점은 6천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때 7년, 1조 2천억 배럴이 매장되어있을 때 15년 후일 것으로 추정함
 - 향후 석유 수요의 증가세가 1.5%로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경우 7년에서 15년 후에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 OPEC의 여유생산 능력의 감소: OPEC의 통상적인 여유 생산 능력은 500만 배럴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3년 100만 배럴로 감소하여 급속한 수요의 증가 시 공급여력의 부족으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⁶⁾
 - OPEC는 석유개발 투자로 2010년의 여유생산 능력을 750만 배럴로 추정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380만 배럴로 전망하여 과거 5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여유생산능력의 감소는 장기적인 수급의 불안정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5) 세계 석유수요 전망 및 Energy Intelligence, 'Balancing The Global Oil Equation 2005-20',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Vol.XLV, No. 40, Oct. 2, 2006 참조.

6) 박복영, OPEC의 석유생산 능력과 국제유가 장기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 06-30호, KIEP 2006년 10월 9일.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혈암(oil shales), 유사(oil sands) 등의 경우, 막대한 개발 비용 등의 원인으로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원유 수급 전망 >

(단위: mb/d)

	수요				공급			
	2005년	2006년	2007년	06-07년 % 변화	2005년	2006년	2007년	06-07년 % 변화
북미	25.46	25.46	25.67	0.83	14.07	14.31	14.75	0.44
서유럽	15.48	15.51	15.53	0.13	5.70	5.37	5.45	0.08
태평양 연안	8.59	8.55	8.56	0.09	0.58	0.54	0.61	0.07
전체 OECD	49.53	49.52	49.76	0.48	20.35	20.22	20.81	0.60
아시아	9.68	8.80	8.96	1.76	2.63	2.69	2.70	0.01
남미	5.07	5.17	5.26	1.74	4.29	4.52	4.65	0.12
중동	5.82	6.16	6.46	4.88	1.87	1.82	1.80	-0.01
아프리카	2.89	2.96	3.01	1.74	3.74	4.09	4.61	0.51
전체 개도국	22.46	23.08	23.68	2.59	12.53	13.13	13.76	0.63
카스피 연안	3.82	3.79	3.80	0.27	11.55	12.05	12.58	0.52
동유럽	0.88	0.91	0.94	3.17	0.16	0.15	0.15	0.00
중국	6.54	7.08	7.50	5.92	3.62	3.71	3.78	0.07
기타 지역	11.24	11.78	12.24	3.89	15.32	15.91	16.50	0.59
세계 전체	83.23	84.38	85.68	1.53	50.07	51.16	53.00	1.84

자료: OPEC Monthly Report, 2006년 9월.

-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 증가) 앞으로도 중국, 인도 등 BRICs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석유 수요 또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임
 - BRICs 등 개도국 경제 성장 지속: IMF에 의하면 BRICs의 2007년 경제성장률은 브라질 4%, 러시아 6.5%, 인도 7.3%, 중국 10%로 평균 6.95%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인 4.9%를 웃도는 고성장을 이룰 것임
 - 2007년 아시아 개도국은 8.6%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아시아의 석유 수요 증가: 중국의 석유 수요는 경기과열 억제 정책 속에서도 5.9% 증가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요 증가율도 전체 평균 1.76%로 세계 평균 증가율인 1.53%를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OPEC, 2006)
 -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세계 석유 수요의 35%(2006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6년 대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술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원유 소비량이 급증세에 있어 세계 경제성장률의 다소 악화가 유가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OPEC 감산) 유가 급락을 막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OPEC 회원국들은 지난 8월 이후 원유 감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감산 원인: 2006년 8월 8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던 유가는 국제정세의 안정 소식에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자금이 이탈하면서 유가는 1개월 사이 20%이상 급락하여 배럴당 55달러 수준에 이르자 OPEC는 감산계획을 발표함
 - 감산 규모: 8~9월의 급속한 가격의 하락으로 10월 8일 현재 OPEC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로 총 100만 b/d 감산

- 에드먼드 다우코루(Edmund Daukoru) OPEC 의장은 WTI유 기준 60달러를 낮은 수준으로 표현하면서 2007년 OPEC의 유가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전망:** OPEC는 유가의 하한선을 정하여 감산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OPEC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감산의 규모도 증가하여, 차후에도 가격이 6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적극적인 감산이 실행될 것으로 보임

<CGES의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1일)

구분	2005 평균	2006					2007 평균	
		1/4	2/4	3/4	4/4	평균		
총 원유 수요(A)	83.6	84.7	83.0	84.5	85.5	84.5	85.6	
OPEC 기준	비OPEC 공급 (B)	50.0	50.6	50.4	50.8	51.6	50.8	52.1
	기타 공급 (C)	4.1	4.2	4.3	4.4	4.5	4.4	4.6
	對OPEC 원유수요 (A-B-C)	29.5	29.9	28.3	29.4	29.5	29.3	28.9
OPEC 원유공급	30.0	29.7	29.8	29.9	29.4	29.7	29.0	
총 원유 공급	84.1	84.5	84.5	85.0	85.4	84.9	85.7	
재고 변동	0.5	-0.2	1.5	0.5	-0.1	0.4	0.1	

자료: OPEC, *Oil Market Report*, 09, 2006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Monthly Oil Report*, 09, 2006.

- (국제정세의 불안 요인 상존) 현재 중동정세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분쟁 재개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이란 핵문제는 평화적인 신속한 해결 가능성이 낮음
- 중동정세 불안정 요인 잔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스라엘 주변국의 테러와 분쟁은 재발 가능성이 높음
- 이란 핵문제: 이란 핵문제가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단기 해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유가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할 전망

-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는 미국과 EU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화적 핵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란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 낮음
 - 이란은 석유 수출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우호세력으로 만들고 UN 안보리를 분열시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노력
 - 이란은 UN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UN제재의 효과도 미약하여 제재 실현 가능성과 극단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낮음
- (국제투기자금의 재유입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자원 민족주의 확산,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 존재 등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의 상존은 국제투기자금이 국제원유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줌
-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로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개도국의 석유 수요 증가는 국제 투기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것임
 - 자원 민족주의 확산: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가 관리로 시작한 자원민족주의는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외국자본에 의한 자원개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어,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은 선물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확보 움직임의 확산으로 유발되고 있는 세계 자원 확보 경쟁은 선물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경쟁으로 이어져 원유 등 원자재 선물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촉진시킴
 -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 증가: 불안한 중동정세와 이란 핵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언제나 증폭 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1%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어도 투기자금의 급속한 이동을 초래하여 국제 원유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관 투자가 자금 유입 급증: 2004년 이후 원유 선물시장에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장기적인 유가의 상승을 예상하여 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

4. 시사점과 과제

- 유가 불안 요인이 현재화 되어 국제유가가 재상승한다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1차, 2차 석유위기 시와 비교할 때, 2006년 현재 실질유가는 12.5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 명목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85달러까지 상승한다면 '3차 오일 쇼크'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 1974년 1차 쇼크 시의 실질유가는 3.05달러에서 9.68달러로 상승하였고, 2차 쇼크 시에는 1979년에 9.04달러에서 1980년과 1981년에는 각각 13.26달러와 15.55달러를 기록함
 - 2004년 실질유가는 7.58달러에서 2005년과 2006년 각각 10.42달러와 12.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만일 2007년 실질유가 17달러(명목유가 85달러) 이상 상승하면 과거 '2차 오일 쇼크' 수준이 될 것임
 - 2007년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유가가 이전의 '석유위기' 수준으로 상승하면 세계경기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물가도 상승하여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과거 석유위기 시 국내 경제 파급 영향 >

		1971~73	1차 쇼크 (1974~76)	1977~79	2차 쇼크 (1980~82)
실질 유가		2.68~3.05	9.68 ~ 8.93	8.67~9.04	13.26 ~15.93
세계	경제성장률 (%)	5.6	3.2	4.4	1.8
	교역량 증가율 (%)	8.4	4.4	5.9	1.6
한국	경제성장률 (%)	8.2	7.9	8.7	4.0
	물가상승률 (%)	9.1	14.8	22.2	38.9
	무역수지 (억달러)	-10.8	-18.8	-27.7	-40.2

주: 1) 1971년부터 1981년의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실질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 라이트(Arab Light)油 공식가격기준이며 1982년의 실질유가는 OPEC 바스켓유가(회원국이 생산하는 6개 유종과 멕시코산 유종의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가격)기준임, OPEC Annual report 2005
 2) 기간 평균임.

-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과거 오일 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연간 8억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2005년 기준) 한국의 경우 국제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 경상수지는 84억 달러 악화되고, 이와 더불어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것임
- (향후 과제) 향후 발생 가능한 석유위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위기 관리 능력 제고 그리고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 중장기적인 수급 대책과 위기관리: 국제원유 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급격한 유가변동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원유비축 능력과 헷지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국가 차원의 원유 확보로 유가 변동의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원유 비축 능력의 확대가 필요함
 - 위험 분산의 목적으로 원유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헷지 능력의 제고가 필요함
- 근본적인 에너지문제 대책 수립: 장기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측되므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자원고갈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전쟁 속에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 자원 확보를 추진
 - 장기적인 가격상승과 자원고갈에 대비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 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인 경제 사회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이원형 연구위원 (3669-4031, lw@hri.co.kr)

7)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유가 10달러 상승 시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미국 0.3%, 아시아 개도국 0.8%이며,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미국 0.5%, 아시아 개도국 1.4%로 추정됨. (KIEP,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제 05-33호, 2005년 9월 20일, p.4.)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3/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4.6%로 하락

○ 200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5.3%에서 4.6%로 하락 (같은 기간 전기비 기준으로는 0.8%에서 0.9%로 소폭 상승)

소비, 건설투자 부진
지속으로 경기 하강
본격화

-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4% 증가에서 3/4분기에 3.9% 증가에 그쳤으며, 2/4분기 3.9%의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는 3/4분기에도 1.8%의 감소세를 지속

- 한편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1/4분기 6.9%, 2/4분기 7.4%에 이어 3/4분기에도 9.6%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확대

실질무역손실 확대로
국내총소득(GDI) 증
가율은 1.6%에 그침

- 특히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약 -18조 8,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체감 경기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4.6 (0.9)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1.3	3.4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4.1	11.7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3	14.9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1.4	17.6	22.1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4.3	10.6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45	2,316	2,330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3.2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2	19.9	18.4	23.0	22.8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6	27	54	-11	7	-4	-5	-	
	무역수지 (억\$)	294	232	60	49	61	16	51	4	4	20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3	2.9	2.4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2.9	3.8	3.2	
심리	소비자기대지수	86.5	103.0	97.8	99.1	103.0	103.4	97.4	94.3	93.7	94.8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각국 중앙은행의 유로화 비중 증가로 달러화 약세

- 美 연방준비위의 금리 동결과 주택관련 지수의 부진 등으로 금리 하락
- 금리: 미 연방준비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9월 신급주택 가격의 급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하락 (국채 10년물 : 4.79 → 4.72%)
 - 환율: 전 미국 연방은행 총재인 그린스펀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발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 1.2617→1.2694, ¥/\$: 118.73→118.38)

○ (국내 금융 시장)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로 금리 상승

-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로 건설주가 강세
- 주가: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로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로 소폭 상승 (1,364.2 → 1,373.6)
 - 금리: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급등(4.67%)하다 저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을 제약하여 4.65%로 마감 (국고채 3년 수익률, 4.57→4.65%)
 - 환율: 달러화가 글로벌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월말 수출기업의 달러화 환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957.3→949.7)

○ (전망) 국내 경기 부진 전망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0.20.	10.26.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364.2	1,373.6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57	4.65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57.3	949.7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002	12,163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651	16,811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79	4.72
	일국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81	1.75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2617	1.2694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8.73	118.38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6.89	57.42

주 :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